

GS칼텍스,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하향

국제 신용평가기업 Standard & Poor's(S&P)가 GS칼텍스의 장기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<안정적>에서 <부정적>으로 하향조정했다고 12월11일 발표했다.

하지만, GS칼텍스의 장기 기업신용등급과 장기 외화선순위무담보채권에 대한 <BBB+> 등급과 단기 기업신용등급은 <A-2>로 유지했다.

S&P는 “경기침체로 인해 관련기업 사업 전망이 악화되고 GS칼텍스의 공격적인 자본 투자로 레버리지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조치”라고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08/12/12>